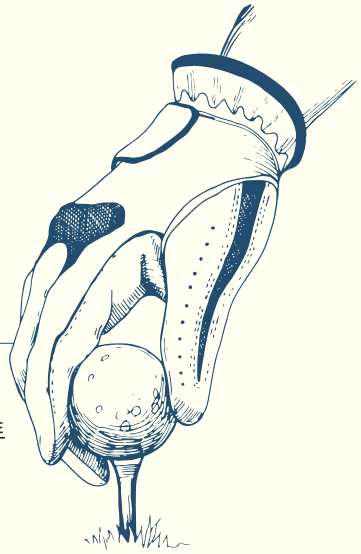
골프 Golf

화려한 기술의 옷을 입는다!



글. MBC 기술정보사업파트

한국을 뒤덮은 K-골프 열풍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다.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한다. 요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들이 있다. 바로 한국에 불고 있는 골프 열풍이다. 골프 유관 기관에서 발표한 한국골프산업백서에 따르면, 한국 골프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성장해서 12조 9,991억 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우리 방송인들이 종사하는 국내 전체 방송시장 규모가 18조 118억 원(2020년 기준, 방통위 자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K-골프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MZ세대 + K-골프

한국의 골프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골프 장비, 골프 의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2030세대, 즉 MZ세대가 골프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다. 국내 금융사에서 분석한 국내 골프 인구는 최근 매년 40만 명이 늘어 500만 명 시대를 돌파했다.

이들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MZ세대라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오랜 시간 국내에서 골프는 고급 스포츠로 위상을 차지하긴 했으나 4050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골프의 역사

요즘 한창 뜨거운 스포츠인 골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지금의 영국 북부 지역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 경기는 15세기 무렵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스코

틀랜드 의회가 골프가 군사 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금지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여전히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The Open)이 매년 열린다. 이 대회는 유명한 은빛의 우승컵 클라레 저그(Claret Jug)를 앞세워 골프 종주국의 위상을 기념한다. 올여름, 영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디오픈은 150번째를 앞두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골프의 대전제 - 있는 그대로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골프라는 스포츠를 이해하는데 골프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 골프가 과거 고리타분한 경기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규칙이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초심자들은 난해한 골프 용어와 규칙을 듣고는 질려버리기 일쑤였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식의 경기와 어려운 골프 용어, 규칙이 골프의 대중화를 막는 장벽 아닌 장벽이었다.

복잡하고 난해한 골프 규칙에는 한 가지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 먼저 골프장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핵심 규칙이다. 이런 대전제를 이해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골프 규칙에 접근하기 쉬워진다. '있는 그대로 친다'라는 대전제를 골프라는 스포츠가 지향한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골프의 숫자 : 18-14-40-72

대한골프협회가 배포한 국제적인 공인 골프 규정집에 있는 내용 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골프 규칙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숫자 18' : 골프는 코스에서 클럽으로 볼을 쳐서 18개(또는 그 이하)의 홀로 이루어진 라운드를 플레이한다.

'숫자 14' : 클럽의 개수는 14개로 제한되고 손상되거나 분실된 클럽은 원칙적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숫자 40' : 선수는 40초 안에, 대체로는 그보다 빠른 시간 안에 스트로크를 할 것을 권장한다.

'숫자 72' : 대부분의 18개 홀은 전부 규정 타수인 파로 홀을 마치게 되면 전체 스코어는 72타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다. 어떤 홀은 73타로 조정된 골프장도 있다.

골프의 장비

기구를 활용하는 스포츠인 골프 역시도 장비는 절대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초심자들은 다양한 골프 장비의 명칭부터 낯설 것이다. 가장 긴 채가 드라이버(Driver)다. 과거에는 진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드(Wood)라는 그다음 긴 채들이 있다. 아이언(Iron)이라는 채들은 드라이버와 우드보다는 조금 짧은 여러 개의 금속 골프채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퍼터(Putter)가 있다.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를 포함해 14개의 채를 넣고 다니는 가방이 골프백이다. 무거운 장비를 수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진 기성제품이 있다. 프로 경기에서는 캐디가 사람 키만 한 골프백을 가지고 다닌다.

골프 장비 시장이 커지면서 날이 갈수록 여러 분야의 기술이 결합하여 요즘 골프 장비들에는 합금 기술, 탄성 공법, 공기역학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프 장비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하늘로 날고 싶은 골퍼

'골린이(골프+어린이, 골프 입문자)'들은 경기 도중에 접하는 골프 용어가 생소하기 마련이다. 골프에는 유난히 새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누구나 들어 봤을 법한 버디(birdie)가 대표적이다. 홀에 규정된 타수보다 -1타로 홀을 마칠 경우 버디를 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은 버디뿐 아니라 다양한 새들이 등장하며, 더욱 다채로워진다.

버디가 -1타이며, 이글(eagle)은 홀에 규정된 타수보다 -2타로 홀을 마치는 경우를 부르는 말이다. 파(par) 5홀, 즉 파를 하기 위해서 5번 타수에 홀컵 안에 골프공을 넣어야 하는 홀에서 3번의 스트로크로 홀 컵에 공을 넣으면 된다. 이

글보다 더 높은 것도 물론 존재한다. -3타의 경우 상상의 새인 알바트로스(Albatross) 혹은 더블 이글로 부른다. 이와 별개로 모든 골퍼의 소망인 홀인원(hole-in-one)이 있다. 이는 한 번의 스트로크로 홀 컵 안에 공을 넣은 경우를 일컫는다. 보통 파 3홀의 티잉 구역에서 티샷 한 번에 홀컵 속으로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나 장타인 분들인 파 4홀에서도 홀인원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홀인원이든, 이글이든 이를 이룬다면, 새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나는 기분이 들 것이다.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을 보인 박세리 선수 / 출처 : 유튜브 캡처

맨발의 투혼, 위기에 강한 K-골프

골프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골프가 주는 짜릿한 희열 탓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골프 열풍의 DNA가 뿌리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IMF 외환위기가 한참인 1998년이다. 당시 한국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맞아서 온 나라가 시름에 젖어 있었다.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4마리의 용(龍)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던 한국인들이 입은 마상(마음의 상처)는 엄청났다.

깊은 패배감에 젖은 한국인을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 바로 유명한 박세리 전 선수의 1998년 US여자오픈 연장전의 '맨발 샷'이다. 박세리 선수는 우승을 목전에 두고 연장전에 진출했는데, 해저드에 빠질 위기를 딛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연못 해저드 안으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친 골프샷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줬다. 이 장면은 세계 골프 역사상 역대급 명장면으로 남아있다.

코로나 위기에 성장한 K-골프

위기에 강한 K-골프는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가 덮친 코시국(코로나 시기)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2030세대가

골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K-골프에는 2030세대가 친숙한 IT 기술이 급속도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골프 산업은 규칙이 엄격하고, 중장년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고정관념 탓에 골프 산업의 변화는 한동안 더뎠다. 국내 스크린 골프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지만, 스크린 골프와 골프는 테니스와 스쿼시처럼 뿌리는 같아도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여기는 중장년층도 대다수였다.

MZ세대의 유입으로 골프에도 여러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오고 있다. 국내 IT 대기업도 중소, 중견기업 중심이던 스크린 골프, 골프장 예약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 기업이 골프장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보다 많은 파생시장을 만들어내는데 골몰하고 있다. IT 기술을 통해 골프장에서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진짜 골프장과 가상 골프장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골프 IT 기술의 발전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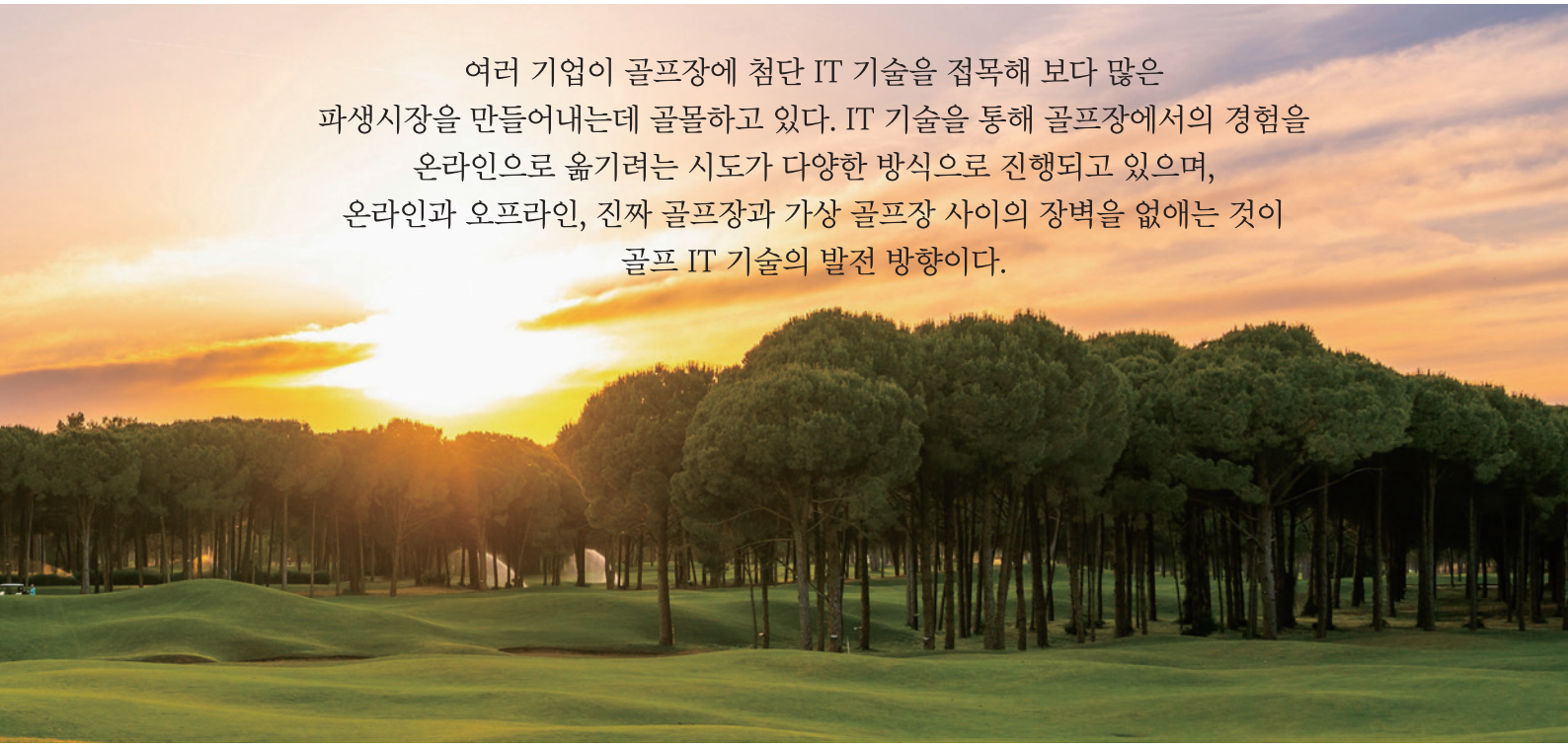
방송기술과 K-골프

방송기술과 K-골프의 접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방송사인 MBC는 방송기술 기반인 MBC-RTK 기술을 사용해 이미 국내 프로골프 대회에서 cm급 수준의 정확한 고정밀 위치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며, 방송 IT 기술과 골프와의 접점을 만들어왔다.

골프는 정확도가 생명인 스포츠인 만큼, 골프 선수의 스윙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방송 영상 기술과 함께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도 필수적인 첨단 기술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 통신사와 골프 IT 기업들도 더욱 정확한 골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IT 기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다채롭게 새로운 기술은 K-골프 열풍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5,000만 'K-골프' 시대의 미래

지난해 골프장을 방문한 입장객이 한국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골린이'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초록의 잔디 위에서 즐거운 라운딩을 즐기길 바라면서, 화려한 IT 기술의 옷을 입는 K-골프에 대한 간략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방송과기술』 버디(birdie) 여러분! Go! Eagle!!!

참고 자료 : 한국골프산업백서(2020), 한국방송산업실태조사(2021), 한국골프협회 공식홈페이지, 대한체육회 공식홈페이지